

士林共同體와 선비儀禮

김장태*

- I. 선비의례와 공동체의식
- II. 土相見禮와 선비의 만남
- III. 鄉飲酒禮의 교화기능과 선비공동체의 결속
- IV. 鄉射禮와 投壺의례의 성찰과 수양
- V. 講學의례와 先賢·先師의 존숭
- VI. 선비의례의 특성과 의의

I. 선비의례와 공동체의식

공자는 어진 덕(仁)을 실현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자신을 극복하는 것’(克己)이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기준이 바로 ‘禮’이다. 주자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요 기준이 되는 ‘예’란 보편적 원리로서 ‘天理’가 구체적 제도와 형식으로 제시된 것(節文)이요, 인간의 모든 행위로서 ‘人事’에서 마땅한 법칙(義則)이라 해석한다. 공자는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란 바로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예’에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爲仁)이라 언급하였으니, ‘예’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보편적 세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 질서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예’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폐쇄화된 개인으로서의 ‘자신’(己·私)을 극복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가 ‘예’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진 덕의 실현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주는 것이요, 올바른 인간관계의 규범인 人倫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만큼 ‘예’는 보편적 원리요 질서로서 안정된

* 서울대 교수

2 종교와 문화

인간관계의 유대를 확보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나의 행위에 표준이 될 뿐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어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 단위인 혈연공동체로서 ‘가정’에서부터 지역공동체인 ‘향촌’과 강학공동체인 ‘학교’와 나아가 더욱 광범한 사회단위로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에 질서와 정당성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이다.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참된 인간을 추구하는 인격체이며, ‘어질고 의로운’(仁義) 덕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선비는 이기적 사사로움(私)을 벗어나서 공공(公)의 열린 자세를 지킴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의 규범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존재요, ‘예’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유대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비들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원리도 ‘예’를 통해서 확립하고, 스승과 제자가 만나고 붕우들이 만나서 강학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에서도 서로 교류하는 향촌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를 확립하고 있다. 고대사회의 유교의례는 봉건적 신분제에 따라 ‘天子·諸侯·大夫·士·庶人’이라는 다섯 계급(五服)의 의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의례의 기준은 ‘士’(선비)의 의례였다. 유교경전으로서 『의례』는 ‘士冠禮’·‘士昏禮’·‘士相見禮’ 등 주로 ‘士’계급의 의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계급의 의례는 ‘사’의 의례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적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게 된다. 조선말기의 유학자 性齋 許傳은 『의례』에서 ‘사’계급의 의례를 제시한 것에 따라 家禮를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예학체계를 『士儀』로 이름 붙이고 있다.¹⁾ 그만큼 의례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중심의 주체는 선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의례는 흔히 국가의례인 ‘邦國禮(國朝禮)’와 학교의례인 ‘學禮’, 향촌의례인 ‘鄉禮’, 가정의례인 ‘家禮’의 4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주자는 『儀禮經傳通解』에서, 의례의 체계를 ‘가례’·‘향례’·‘학례’·‘방국례’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²⁾ 여기서 국가의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례의 주체는 선비계층이요, 특히 ‘향례’는 선비의례

- 1) 허전의 『士儀』는 親親·成人·正始·易戚·如在·方喪·法服·論禮의 8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내용은 成人(冠)·正始(昏)·易戚(喪)·如在(祭)의 四禮로서 ‘家禮’와 같은 내용이다.
- 2) 주자의 『儀禮經傳通解』는 다음의 의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 <家禮> : 士冠禮(冠義)·士昏禮(昏義)·內則·內治·五宗·親屬記.
 - <鄉禮> : 士相見禮(士相見義)·投壺·鄉飲酒禮(鄉飲酒義)·鄉射禮(鄉射義).
 - <學禮> : 學制(學義)·弟子職·少儀·曲禮·臣禮·鐘律(鐘律義)·詩樂·禮樂記·書數·學記·大學·中庸·保傅傳·踐阼·五學.
 - <邦國禮> : 燕禮(燕義)·大射禮(大射義)·聘禮(聘義)·公食大夫禮(公食大夫義)·諸侯相朝禮(諸侯相朝義).

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자의 『의례경전통해』에서는 ‘향례’를 ‘土相見禮’·‘投壺’·‘鄉飲酒禮’·‘鄉射禮’의 4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곧 ‘사상견례’·‘향사례’·‘향음주례’는 선비들이 향촌에서 회합하는 의례이며, ‘투호’는 선비들이 여가에 놀이로 하는 것이지만 의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비들은 유교의 도통을 존송하여 공자를 중심으로 옛 성현을 모신 성균관과 향교의 文廟(大成殿)에 참배하거나 제향하는 의례를 행하며, 서원과 祠宇에서 그 지방의 先賢을 제향하면서 의례공동체를 이루기도 한다. 성균관과 향교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비들이지만, 모두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의 교육기관인데 비하여, 서원이나 서당은 그 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관리되는 민간의 교육기관이므로 선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의 강화 공동체가 수행하는 의례도 선비의례의 중요한 영역을 이루는 것이다.

II. 土相見禮와 선비의 만남

선비들은 붕우로서 서로 사귀고 학문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남으로써 교류를 넓히기를 소중하게 여겼다. 선비와 선비가 서로 만남에는 사양함과 공경함을 극진히 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의례로써 정립한 것이 ‘사상견례’이다.³⁾ ‘사상견례’에서는 선비가 주인과 賓(손님)으로서 만나는 것이요, 서로 극진한 공경을 의례에 담고 있다. ‘빈’이 주인을 찾아갈 때는 공경의 뜻을 밝히기 위해 먼저 폐백(贄)을 갖추어야 하며, 겨울에는 꿩(雉)으로, 여름에는 꿩고기의 포(脬)로 폐백을 삼는다. ‘빈’이 주인을 찾아가 뵈기를 청하면서 폐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존경하는 뜻을 두고 화목함을 중시하는 것이라 한다. 폐백을 갖추으로써 선비와 선비가 개인으로서 서로 만나는 지극히 사사로운 일을 의례화하여 존중함과 엄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선비의 서로 만남을 의례로써 실행함으로써 자신을 신중하게 하여 욕됨이 없게 하고 사귀음을 신중하게 하여 재앙을 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의 만남을 위한 의례로서 ‘사상견례’는 사람 도리로서 중대한 것(人道之大)이라 지적되고

3) 『의례』에서 「土相見禮」를 세 번째편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恭山 宋浚弼은 ‘사상견례’의 의례절차를 대체로 ‘請見·送贄·反見·傳言·饋食·送賓·還贄’의 7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宋浚弼, 『六禮修略』 권10, 1-8, ‘土相見禮’(『恭山文集』, 하, 307-310쪽)

있다.⁴⁾

‘사상견례’에서는 ‘빈’이 ‘주인’을 찾아 방문할 때 소개하는 사람을 사이에 설정한다. 그것은 선비의 만남이 구차스럽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빈’이 때문에 이르르면 ‘주인’은 세 번 사양하고 ‘빈’이 돌아갈 때는 주인이 ‘빈’의 뒤를 따라나가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이리하여 존중함과 엄숙함을 이루어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일이 없이 끝까지 서로 기뻐하고 친애함을 실현한다. 나아가 ‘주인’과 ‘빈’ 사이에 인사가 끝나면 주인은 음식으로 ‘빈’을 대접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좋아하여 먹고 마시게 하고자 함을 의례화한 것이다.

19세기말의 유학자 蘧谷 盧正燮은 매월 초하루(朔日)에 문인들을 모아놓고 ‘사상견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선비의 만남을 의례로서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선비들이 서로 공경하고 친애하는 사귀의 도리를 익히게 하여 생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鄉飲酒禮의 교화기능과 선비공동체의 결속

‘향음주례’는 향촌에서 선비들이 향교나 서원·서당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主賓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향촌의례(鄉禮)로서, 어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데 뜻을 둔다. 『주례』(地官·鄉大夫)에서는 鄉大夫(지방의 수령)가 鄉學에서 학업을 닦은 인물 가운데서 덕행과 학문과 기예를 살펴서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하고, 그들을 賓禮로써 대우하는 일종의 송별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향음주례’의 원형으로 보인다. 『의례』 「향음주례」편에서는 의례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⁵⁾ 『예기』 「鄉飲酒義」편에서는 그 의례절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곧 ‘향음주례’는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尊長) 노인을 봉양하는(養老) 것을 알며, 효도와 우애(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귀천의 분수도 밝혀지며, 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국가를 편안하

4) 주자, 『儀禮經傳通解』 권6, 17-18, ‘士相見義’.

5) 주자는 『의례전통해』에서 『의례』 「향음주례」편의 절차를 ‘謀賓介·戒賓介·設席·速賓·迎賓·獻賓·賓酢主人·主人酬賓·主人獻介·介酢主人·主人獻衆賓·一人舉觶·樂賓·立司正·司正舉觶·旅酬·二人舉觶·徹俎·燕·賓出·遵入·拜禮·息司正’의 23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한다.

‘향음주례’의 의례절차에서 주인은 ‘빈’을 향교의 문밖에 나와 절하고 맞으며, 들어가서는 세 번揖하고 층계에 이르며 세 번 사양한 다음에 층계를 올라가는 의례는 ‘존중과 사양함’을 이루는 것이요, 손을 씻고난 다음에 술잔을 들어올리는 것은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요, 모든 의례절차마다 拜하는 것은 ‘공경함’을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의례절차를 통해 ‘존중과 사양’, ‘깨끗함’, ‘공경함’을 이룸으로써 다투지 않고 거만하지 않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선비들이 어울려 서로 교유하는 도리라는 것이다.⁶⁾

또한 의례의 중심역할로서 ‘빈’과 ‘주인’은 하늘과 땅을 형상하고, ‘介’(賓을 돕는 사람)와 ‘僕’(주인을 돕는 사람)은 陰·陽 또는 日·月을 형상하며, ‘三賓’(賓을 도움)은 해와 달과 별의 세 빛을 형상한 것이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례절차에서 세 번 사양하는 것은 달이 그믐 후 사흘만에 초생달이 나타날 때 ‘魄’(달의 빛이 없는 부분)이 이루는 것을 형상하고, 참례하는 사람이 堂의 사면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은 四時를 형상하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공간의 방위는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고 도덕의 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천지의 엄숙하고 응집된 기운(嚴凝之氣)은 서남에서 시작하여 서북에서 융성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천지의 ‘존엄한 기운’(尊嚴氣)이라 하고, 천지의 ‘의로운 기운’(義氣)이라 한다. 또한 천지의 따뜻하고 두터운 기운(溫厚之氣)은 동북에서 시작하여 동남에서 융성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천지의 ‘융성한 덕의 기운’이라 하고, 천지의 ‘어진 기운’(仁氣)이라 한다. 이에 따라 ‘빈’은 의로움(義)으로써 사람을 응접하니 서북쪽에 앉고, ‘介’가 서남쪽에 앉아 ‘빈’을 돕게 되며, ‘주인’은 어진 덕(仁)으로 사람을 응접하니 동남쪽에 앉고 ‘僕’이 동북쪽에 앉아 ‘주인’을 돕게 하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향음주례’에서 선비들이 맡고있는 의례적 역할과 의례의 절차나 공간적 배치가 바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향음주례’에서는 60세 된 사람은 당(堂) 위에 앉고 50세 된 사람은 당 아래에 서게 하는 것은 ‘어른을 존중하는’(尊長) 도리를 밝히는 것이요, 60세 된 사람에게는 3두(豆), 70세 된 사람에게는 4두, 80세 된 사람에게는 5두 등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대접하는 음식의 그릇 수를 더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養老) 도리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향음주례’를 통해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도리를 익히게 함으로써 가정에 들어가 효도와 우애(孝弟)의 교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6) 『예기』, 「鄉飲酒義」, “尊讓絮敬也者, 君子之所以相接也.”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향음주례’는 향촌의 많은 선비들이 함께 모이는 의례이다. 따라서 ① 의례절차를 통하여 지위에 따라 귀천을 구별하고(明貴賤), ② 이에 의례의 절차를 갖추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여 높이고 낮춤을 분변하며(辨隆殺), ③ 음악의 연주는 화락하면서 치우치게 흐르지 않도록 하며(和樂而不流), ④ ‘빈’과 ‘주인’ 등이 술잔을 주고받는 절차에서는 나이에 따라 순서를 밝혀서 빠짐없이 어른을 공경하게 하며(弟長而無遺), ⑤ 술잔을 주고받는 의례를 하면서도 그 날에 다른 사무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연회를 편안히 하면서 어지러운데 빠지지 않게 한다(安燕而不亂)는 점이 강조된다. 바로 이러한 의례의 다섯가지 역할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正身安國) 것이라 강조된다.⁷⁾

중국의 명나라 태조 때 「鄉飲酒禮條式」을 상세히 규정하여 지방 수령이 學官(향교의 교관)과 더불어 연령이 높은 사대부를 거느리고 학교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으며, 민간에서도 100戶 단위로 모여 里長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正賓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 순서로 자리잡고 앉게 하여 계절마다 마을에서 행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인종 때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州에서 선비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세종 때 시작하여 성종 초에 편찬이 완성되었던 『國朝五禮儀』에 의해 의례가 정립된 이후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해마다 겨울 첫달(孟冬)의 吉辰을 택하여 한성부와 各道·州·府·郡·縣에서 행하였으며, 각 지방의 수령이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을 주빈으로 삼고, 그 밖의 유생을 ‘빈’으로 하여, 학당에 酒卓을 마련하고 서로 모여 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酒宴을 함께 하고 戒를告했던 것이다. 이때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하여 참석시켰으며, 주인과 손님 사이에 의례의 절도에 따라 술잔을 주고받는 절차(獻酬)에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택자를 높임으로써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회가 끝나면 司正이 나아가 ‘빈’과 ‘주인’ 및 서민까지 자리에 앉은 가운데 ‘讓約’을 하였다. 곧 “우리 老少는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는 충성하고, 어버이에는 효도하고,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잘 어울리고 서로 教誨하고

7) 『예기』, 「鄉飲酒義」, “貴賤明, 隆殺辨, 和樂而不流, 弟長而無遺, 安燕而不亂, 此五行者, 足以正身安國矣.”

서로 규찰하여 잘못이 있거나 게으름펴서 삶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誓詞를 읽었던 것이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향촌에서 덕망이 높은 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도·우애·화목·친근’(孝悌睦隣)을 권장하는 교화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향음주례’에서는 ‘효도·우애·화목·친근’의 내용을 담은 약조같은 것을 講釋하여 흡사 ‘鄉約’의 講信禮와 같았고, ‘향음주례’와 ‘향약’은 서로 혼칭되어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처럼 사용되었다.

이처럼 ‘향음주례’가 지방의 수령이 주도하여 향촌의 교화를 위한 의례로 실행되었던 측면과는 달리,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면서 때로 동문들이 모이거나 인근 지역의 선비들이 집결하여 나이에 따른 ‘長幼’의 차례로 질서를 이루며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는 선비공동체의 의례로써 정착되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말기에 와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선비공동체의 내부적 결속이 강화될 필요가 절실해지면서 ‘향음주례’는 지역의 선비들이나 같은 학맥의 선비들이 모인 선비공동체의 의례로써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한말의 대표적 도학자의 한 사람인 華西 李恒老는 고향인 槩溪의 시냇가에 敬壇을 쌓고 ‘향음주례’를 행하여 학풍을 열었으며, 그 뒤로 봄가을로 ‘향음주례’를 거행하여 선비들의 집회나 문인들과 강학할 때의 선비의례로 정립함으로써 선비공동체의 학풍과 결속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항로의 문하에서는 그의 학풍과 더불어 ‘향음주례’의 거행이 선비공동체의 의례로서 생활화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곧 重菴 金平默은 문인들을 거느리고 先賢들을 제향하는 서원과 선현들의 무덤을 찾아가 두루 참배하는 순례의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逍遙山의 鳳飛臺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으며, 만년에 永平 白雲山에서 강학할 때도 시냇가에 居然臺를 쌓고 그 곳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勉菴 崔益鉉도 만년에 定山(충남 청양군)으로 옮겨 살 때도 문인들과 지역 선비들을 모아 定山鄉校에서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省齋 柳重教는 長潭(현재 충북 제천시)으로 이사하자 이곳에서 학풍을 일으켜 앞 냇가에 溪壇을 쌓고 봄가을로 강학을 마친 다음에 ‘향음주례’를 행하였으며, 이때 백명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평북 泰川의 雲菴 朴文一은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 ‘향음주례’에 참석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壇을 쌓고서 스스로 笏記(의례절차의 차례를 적은 글)를 읽고 스스로 ‘빈’과 ‘주인’ 역할을 하며, 혼자 매일 ‘향음주례’를 연습하여 익혔다 하니, 당시 선비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향음주례’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각성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IV. 鄉射禮와 投壺의례의 성찰과 수양

‘향사례’는 『주례』(地官·鄉大夫)에 의하면 周나라 때 지방행정을 맡은 鄉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행하는 활쏘는 의식이다. 곧 향대부가 正月에 司徒로부터 국가의 教法을 받아 鄉吏(州長)에게 나누어주면, 향리는 정월 중의 길일을 택해 ‘향사례’를 행하여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한다. ‘향사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다섯가지 기준은 첫 번째 활을 쏠 때 和(和)와 容(容)을 보고, 두 번째 활을 쏠 때 皮(皮)와 容(容)을 보고, 세 번째 활을 쏠 때 和(和)와 容(容) 그리고 舞(舞)에 맞는지(興舞)를 본다고 하였다.⁸⁾ 여기서 활쏘기를 인재선택의 방법으로 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례』(鄉射禮)에서는 州長이 봄가을 두계절에 예법에 따라 백성을 모아 州序(州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익히는(習射) 의례라 하여, ‘향사례’의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⁹⁾

선비들이 향촌에서 모여 행하는 의례로는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대표적이다. 고대에는 제후가 주관하는 ‘燕禮’나 卿·大夫·士가 주관하는 ‘향음주례’가 행해진 다음에 활을 쏘는 의례를 행하였다 하니,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잇달아 행하였던 연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예기』 「射義」편에서는 중국의 옛 풍속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 여섯으로 하늘과 땅과 사방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고 한다. 여기서 천지와 사방은 남자에게 일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먼저 그 일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음을 밝히고 나서 어미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활쏘기로서 ‘射’의 뜻은 ‘찾는다’(繹)는 뜻으로 각자가 자신의 의지가 지향하는 도리를 찾는 것이라 하고, ‘머물다’(舍)는 뜻으로 임금으로서의 ‘仁’에 머물고, 아버지로서는 ‘慈’에 머무는 등 머물어야 하는 도리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활쏘기가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통해 활과 화살을 확고하게 집

8) 『주례』, 「地官·鄉大夫」, “鄉大夫之職…以鄉射之禮五物詢衆庶一曰和二曰容三曰主皮四曰和容五曰興舞.”

9) 『의례경전통해』에서는 『의례』 「향사례」편의 절차를 ‘戒賓·設位·張侯·速賓·迎賓·主人獻賓·賓酢主人·主人酬賓·獻衆賓·一人舉鞀·獻大夫·大夫酢·樂賓·立司正·司正舉鞀·請射·誘射·初射獲而未釋獲·取矢·再請射·再射釋獲·賓主大夫衆賓射·取矢視算·飲不勝者·獻獲者·三請射·三射用樂·取矢視算·飲不勝者·三射畢·旅酬·二人舉鞀·徹俎·燕·賓出·拜賜·息司正’의 3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고서 과녁(正鵠)을 맞혀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과녁이 바로 각자가 지향해야 할 도리의 기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활을 쏜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정곡을 쏘는 것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다.¹⁰⁾

또한 ‘활을 쏜다’(射)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나며揖하고 사양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예법에 맞아야 한다”고 언급하여, 활쏘기의 절도는 이미 예법을 떠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활을 쏘는 자세로서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곧게 한 다음에야 활과 화살을 잡음이 확고하게 되며, 활과 화살을 확고하게 잡은 다음에야 ‘맞는다’(中)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은 덕행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¹¹⁾라고 하여, 마음과 몸이 바르고 반듯하며, 활과 화살을 붙잡고 있음이 확고한 활 쏘는 자세를 통해 덕행이 드러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안으로 뜻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속에 간직하는 바가 ‘공경함’(敬)이요, ‘밖으로 몸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공경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엄숙함’(莊)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맞는다’(中)는 것은 안과 밖을 서로 닦아서 일에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그것은 이미 ‘향사례’에서 활쏘는 것이 결코 놀이가 아니라 선비가 평소에 닦아온 학문과 수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의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시에 ‘향사례’를 통하여 마음과 몸에서 덕행을 닦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쏘기’는 무술의 技藝가 아니라 ‘인’의 도리라 언급하고 있다. 곧 “활쏘기는 자기 자신에게서 바르게 하기를 찾으며, 자신을 바르게 한 다음에 활을 쏘며, 쏘아서 맞지 않으면 이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이켜 찾을 뿐이다”¹³⁾라고 하여, 철저히 자신을 성찰하고 연마함으로써 정곡에 맞히기를 추구하는 수양의 방법이요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라 확인한다. 공자도 군자에게는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밝히면서, 활쏘기에서 둘이 올라갈 때 세 번 읊하고 올라가며, 내려와서는 이긴 사람이 읊하면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의례가 군자로서의 다툼이라 한 것이다.(『논어』, 八佾) 그만큼 활쏘기는 덕행을 갖추고서 경쟁하는 가운

10) 『예기』, 「射義」, “射之爲言者繹也, 或曰, 舍也, 繹者, 各繹己之志也, 故心平體正, 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則射中矣, …故射者, 各射己之鵠。”

11) 『예기』, 「射義」, “射者, 進退周還必中禮, 內志正, 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

12) 『의례전통해』 권8, 62, 「鄉射義」, “所存乎內者敬, 則所形乎外者莊矣, 內外交修, 則發乎事者中矣.”

13) 『예기』, 「射義」, “射者, 仁之道也, 射求正諸己, 己正而後發, 發而不中則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

데 예법과 음악의 절도에 맞게 하는 것으로 남자로서의 일이면서 군자다운 의례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향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世宗實錄』에 수록된 『五禮儀』에서 ‘鄉射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향사의’는 五禮 가운데 軍禮의식으로서 매년 3월 3일(가을에는 9월 9일)에 개성부와 여러 도·주·부·군·현에서 그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음주례’가 나이가 많고 덕과 재주가 있는 자를 앞세우는 반면, ‘향사례’에서는 孝·悌·忠·信하며 예법을 좋아하여 행실이 어지럽지 않은 자를 앞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종 때까지도 지방 수령 감사들이 거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세조의 집권으로 물러났다가 성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중앙에 진출하였던 영남의 사림파들은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留鄉所’의 復立문제를 제기하였다. 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은 단순한 옛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勳戚계열이 ‘京在所’ 제도를 통해 복립된 유향소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사림파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실제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중종 때에 이르러 향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때는 성종 때와는 달리 ‘향음주례’의 시행을 중심으로 거론되며, ‘향음주례’와 함께 논의된 것은 ‘향사례’가 아니라 ‘혼례’에서의 ‘親迎禮’였다. 그 이유는 ‘향사례’가 ‘뜻을 바르게 함(正志)을 위한 것이라 할 때, 그 의식시행의 대상은 유생에 제한되는 것이었으므로, 민간의 풍속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呂氏鄉約」 보급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¹⁴⁾

그 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향촌에서는 ‘鄉射堂’을 세워 ‘향사례’를 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초 지방의 선비들이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향사당’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仁洞의 旅軒 張顯光은 「鄉射堂記」에서 무너진 ‘향사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풍속을 교화하는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같은 시대 尙州의 蒼石 李堧은 「鄉射堂重修記」에서 鄉正의 직책과 鄉約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토대 위에 ‘향사례’의 의례를 회복하여 향촌의 풍속을 바르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향사례’는 조선후기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한말에 오면 선비들이 공동체의식을 강

14) 이태진, 「향촌질서 재편운동」,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257-278쪽 참조

화하는 과정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평북 泰川의 雲菴 朴文一은 서원에서 강학할 때도 제자들과 ‘향사례’를 행하였으며, 朔州에 머물 때는 縣監의 요청에 따라 東軒에서 ‘향사례’를 행하였던 사실도 볼 수 있다.

‘투호’는 선비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가운데 병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병 속에 화살을 던져넣는 놀이이다. ‘향음주례’를 베풀고나서 ‘향사례’를 행하는데, ‘향사례’를 행하기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향사례’의 간략화된 형식으로 ‘투호’를 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사례’에는 예법과 음악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호’에서는 예법도 간소하고 의례절차에는 음악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개 음악을 생략하였다. 그러나 의례의 정신에서는 ‘향사례’와 ‘투호’가 같은 것이라 보며, ‘투호’는 놀이적 성격이 좀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례』나 『의례』에는 ‘투호’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예기』와 『大戴禮記』의 「투호」 편에서 의례절차를 제시하고 있다.¹⁵⁾

‘투호’는 중국에서 당나라 때 성행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일찍 들어와 삼국시대에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중에서 耆老宴 때 여흥으로 벌였으며, 의례를 위한 설비가 간략하므로 선비들 사이에서도 행해졌던 사실을 볼 수 있다. 퇴계의 유품에도 투호의 향아리가 남아 있으니, 그가 강학하는 여가에 제자들과 ‘투호’를 하면서 의례를 익히고 수양을 하는 방법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講學의례와 先賢·先師의 존숭

조선시대 선비들은 독서인으로서 ‘강학’이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사상견례’·‘향사례’·‘향음주례’·‘투호’ 등도 ‘강학’의 여가에 선비의례(士禮)로서 익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선비들은 강학하는 과정에 ‘學規’를 정하여 학업을 규칙화하였으며, 또한 강학활동 그 자체를 의례화하여 학풍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형성해갔던 사실을 ‘강학의례’로서 확인해볼 수 있다.

율곡은 石潭(황해도 해주)에 머물면서 ‘高山九曲’의 제5곡에 ‘隱屏精舍’를 세우고 강학할 때 「隱屏精舍學規」를 지었다. 이 ‘학규’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스승과

15) 『의례경전통해』에서는 ‘투호’의 절차로서, ‘請投·就筵·作樂·請投視算·卒投飲不勝者·三投慶多馬’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송나라 때 司馬光의 『投壺格範』에 ‘투호’의 기구와 행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자가 모두 의복을 갖추고 사당(廟)에 나아가 中門을 열고서 再拜하며, 焚香하고 나서 다시 재배하는 것을 의례화하였다. 또한 평일에도 평상복으로 사당의 뜰(廟庭)에 나가 중문을 열지 않은 채로 재배하였으며, 스승 앞에 나가 배례를 하며, 제자들은 동서로 마주 서서 揖禮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강학의례를 제시하고 있다.¹⁶⁾ 또한 율곡은 해주 文憲書院(崔冲이 主享)의 '學規'(「文憲書院學規」)를 정하면서, 매일 아침 학생들이 동서로 나누어 서서 나이 차례로 서로 향하여 相揖禮를 행하게 하고, 매월 초하루 보름에는 학생들이 의복을 갖추어 입고 사당에 나아가 중문을 열고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분향하면 함께 재배하는 강학의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학의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원이나 서당에서 강학할 때 행하는 일반적인 의례로서 정형화되었던 것이다.

星湖 李瀾의 문인인 鹿庵 權哲身은 제자들과 거울에 가까운 절 天真菴을 찾아가 강학하였는데, 이때 권철신은 규정을 정하여, 새벽에 일어나면 차가운 샘물을 길어 세수하고 나서, 「夙興夜寐箴」을 외우고, 해가 뜨면 「敬齋箴」을 외우고, 정오에는 「四勿箴」을 외우고, 해가지면 「西銘」을 외우며, 엄숙한 강학의 분위기를 이루었고, 때로 바깥에 나가 '향사례'를 행하였다 한다.¹⁷⁾ 이처럼 '강학'하면서 함께 箴·銘을 외우는 것을 '강학의례'로서 정립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말의 이항로 문하인 華西學派에서는 강학이 중시되고 문인들의 공동체의식을 결속시키는 '강학의례'가 더욱 체계적인 의례로 정립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유중고는 스승 이항로의 강학방법을 계승하고, 이를 '강학의례'로서 정밀하게 정비하는 데 힘을 기울여, '강학의례'의 절차를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엄숙한 학풍을 정립하고 있다. 곧 그는 漢浦(현 가평군 설악면)에 살 때의 漢浦書社에서나 玉溪(현 가평군 가평읍)에 살 때 紫陽書社를 세워 강학하면서 스승 이항로의 규정에 따라 '강회'의 笏記를 정하여 '강학의례'를 행하였다. 곧 그는 朱子·尤菴·華西의 遺像을 모셔두고 예복(幅巾·深衣·黑履)을 갖추고서 문인들을 거느리고 展拜하며, 그리고 나서 문인들의 절을 받고 문인들이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읊한 다음 자리에 앉으면, 「白鹿洞書院學規」를 송독하는 강학의례를 행하였다. 특히 그는 자양 서사에서 강학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 오래동안 靜坐하면서 「敬齋箴」·「夙興夜寐箴」 등을 송독하였으며, 저녁에는 그가 북쪽 벽 아래에 앉으면 제자들이 북쪽을 향해 읊을 하고 나서 앉은 다음, 그가 먼저 옛 銘·箴을 한 두편 송독하고 학생들도

16) 『율곡전서』 권15, 44, 「隱屏精舍學規」.

17) 정약용, 『與猶堂全書』[1] 권15, 39, 「先仲氏墓誌銘」.

이어서 송독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학생 두명이 서쪽 벽에 동향하고 앉아 북과 거문고의 음률에 맞추어 『시경』의 「關雎」·「鹿鳴」 등을 노래하게 한 다음에 그날의 강학을 끝내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그의 강학의례는 예법과 더불어 음악이 갖추어진 체계적 의례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유증교는 부모를 섬기는 일도 의례의 절차로 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晨昏定省儀」, 초하루 보름으로 뵙는 「朔望參謁儀」, 명절에 부모의 장수를 축원하는 「時節上壽儀」를 규정한 「事親三儀」를 지었다. 또한 부친의 명으로 「家衆誠辭」를 지어 가족이 모여 의례를 하고나서 한 사람이 독송하여 훈계하게 하였는데, 그 큰 절목은 ‘명분을 삼가고’(謹名分), ‘사랑하고 공경함을 높이며’(崇愛敬),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勤職事), ‘예절을 숭상한다’(崇禮節)는 네가지 조목이었다. 그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喪을 마치고 나서도 주자의 훈계에 근거하여 부친의 遺像을 正堂(대청)에 봉안하여, 초하루 보름으로 새벽에 뵙는(參謁) 의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과 좌우로 앉아 자녀들의 절을 받으며 부친이 생시에 훈계한 「家衆誠辭」를 독송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는 가법을 엄중하게 하는 의례를 정립하는 선비의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국가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과 향교의 文廟(大成殿)에서 공자와 先賢들에 대한 제향에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향촌에서 그 지역과 연고가 깊은 선현들을 모시는 「祠宇」를 세우고 제향함으로써 선현을 높였다. 이렇게 선현들의 학덕과 행적을 높임으로써 학풍을 일으키고 지역 사립들의 결집을 강화하였던 것이며, ‘사우’만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書院에 ‘사우’를 함께 세움으로써 학문을 강론하고(講學) 선현을 존송하는(尊賢) 일을 결합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에 서원은 1543년 주세붕에 의해 ‘白雲洞書院(紹修書院으로 賜額)이 설립된 이후 퇴계에 의해 활발한 서원건립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널리 확산되어갔다. 서원은 도덕과 절의가 탁월한 先賢을 제향하는 祠宇를 세우고 후학들이 모여 학문을 연마하는 강당이 갖추어져,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는 동시에 선현을 제향하는 곳이다.

퇴계는 星州의 迎鳳書院(川谷書院으로 개명)에 붙인 기문(「迎鳳書院記」)에서 이곳에 배향된 3先賢(李兆年·李仁復·金宏弼) 가운데 특히 김굉필의 학문체계를 “『소학』을 따라 근본을 배양하고, 『대학』을 좇아 규모를 세우며, 誠과 敬을 힘써 지키고 『육경』을 발휘하여 성현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약하는 것”이라 제시하여, 선현의 학문방법을 따르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원에서 학문을 닦아기는 자세로서 건물에 붙인 여러 扁額을 쳐다보고 그 뜻을 생각하여 살얼을 밟듯 조심하

며, ‘祠宇’를 쳐다보며 여기에 모신 옛 스승을 생각하여 그 은택에 서로 의지할 것을 강조하며, 나아가 산을 쌓아올리듯 노력을 계속하여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역설한다. 이렇게 선현을 존중하고 학문을 닦아간다면, 그 성취하는 바로서 품격이 높은 사람은 聖賢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낮은 사람도 오히려 착하고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근본의도는 바로 선비의 학문과 덕을 향상시켜 향촌에 머물면 가정을 바르게 하고 세속에 모범이 되게 하며, 벼슬에 나가면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임을 밝혔다.

울곡은 평안도 熙川에 김굉필과 조광조를 모신 ‘兩賢祠’의 기문(「熙川兩賢祠記」)에서 선비들이 지역적 연고가 깊고 시대가 가까운 선현을 모시는 ‘사우’를 세워 공경하면, 반드시 쉽게 바라보고 감동할 것이요 신속하게 감흥하여 분발할 것이라 지적하며, 사당에 들어와 우러러보면 누구나 선현을 경모하고 학문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선현을 모신 ‘사우’를 통해 선비들이 선현을 존경하여 따름으로써 학풍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는 중심에는 ‘사우’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비들은 이 ‘사우’에서 옛 선현을 제향하여 존송함으로써 그 학문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비들은 학문과 수양과 절의에서 옛 선현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더욱 폭넓은 시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서원의 ‘사우’는 특히 그 지역적 연고가 강한 인물이 제향됨으로써, 그 지역 선비들의 유대의식을 강화시켜주고 학풍의 특성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지역사림들의 학맥이 뚜렷하게 분화되고 학통의식이 강화되면서 한 학파의 같은 학맥을 중심으로 서원의 ‘사우’에 모셔지면서, 서원이 선비공동체의 의례와 학풍의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원의 ‘사우’에 선현을 모실 때는 그 지역 선비들의 公論을 거쳐 합의되는 인물이 선택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서원은 조선후기 선비들의 학풍과 학맥이 지닌 지역적 성격과 깊이 연결되었으며, 그만큼 서원이 선비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중교는 그가 살던 潛湖(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迷源書院¹⁸⁾이 1869

18) 迷源書院에는 靜菴 趙光祖, 沙西 金湜, 東岡 南彥經, 淸江 李濟臣, 潛谷 金埴, 三淵 金昌翁이 제향되었으며, 1922년에는 土論에 따라 華西 李恒老, 重菴 金平默, 省齋 柳重教가 미원서원 터의 壇에 배향하였다.

년 훼손될 때, 지역 선비들과 神主를 땅에 묻고 壇을 쌓아 신주의 위치와 차례에 따라 刻石을 세우고 釋菜禮를 행하였으며, 그 후 초하루와 보름날 焚香禮를 행하고, 四時의 첫 달 초하루날 '講會'¹⁹⁾를 열어 展謁禮를 하고 나서 한 사람이 「白鹿洞學規」를 읽게 하였다. 미원서원에는 유증교의 사후인 1922년 이항로·김평묵·유증교를 추가하여 壇에 배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서학파가 결집하는 중심적 서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유증교는 스승 이항로가 죽자 스승이 쓰던 방에 탁자를 두고 그 위에 影幀을 모시고 香案을 설치하였으며, 동서쪽 벽 아래는 스승의 유품(遺稿·遺墨·遺衣·枕几·杖履·琴盃 등)을 진열하여, 書社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제자들이 아침마다 계단 사이에서 절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이나 배우고자 하는 선비가 처음 찾아올 때는 영정을 걸고 분향하게 하는 의례를 「華西先生遺室措置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강학에서 스승에 대한 존중과 선비들이 서로 존중하는 의례를 통하여 강학의 학풍을 정립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VI. 선비의례의 특성과 의의

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유교이념을 계승하고 정립하며 사회에 실현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개인으로서 학문연마와 수양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붕우로 모여 서로 절차탁마하는 강학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공동체는 다양한 선비의례를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의례를 통해 강학과 수양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선비의례가 유교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도학이념의 정통의식과 엄격한 의리론에 근거하여 선비의 이념적 자각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선비의례의 실천을 통해 강학과 수양을 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결속력을 이루었다. 특히 지역적 배경의 향촌사회에서 학파와 학맥이 정립되고, 그 내부적 결속이 강화되어 精舍나 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의례는 더욱 활발하게 시행되었으며, 나아가 조선

19) 『省齋集』 권36에는 「弟子覽見先生禮」를 비롯하여 「書社習禮節次」·「書社飲禮約束」·「書社旬講儀」·「四孟朔會謁先師及就位儀節」·「書社禮食儀」·「紫陽書社設施議」 등에서 강학의례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6 종교와 문화

말기 사회에 사회적 동요가 격심하고 국가체제가 존망의 위기에 당면하자, 선비들의 내적 결속을 위한 선비의례가 더욱 정밀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조선 사회의 선비공동체는 강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의례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확립해갔던 것이 사실이다.